

지난해 말 재단각주들이 앞으로를 보는데 제각각을 갖은 일이 많다. 사자후 모임자리에서 참관자들은 각자의 이해에 따라서 소원된 장지에 적어 내서 모두의 소망사항을 같이 봤는데 제각각 되었다. 사람들은 자기의 다른 친인척의 건강을 비롯한 개인적인 것, 재정적인 것, 자금을 위한 것, 재산을 위한 비법들을 같이 간직하고 있었다. 재산을 위한 소망으로서 공동체적인, 공공복합성을 위한 기대였다. 이해에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배가 했으면 하는 것이었다.

IPPP(전반 재단)의 창립되면서 세운 기금의 목표는 1000억원이었고 이를 두고 일주일에 10억씩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상황이 목표액이 더뎠고 해를 지기로 하였고 120여개의 여생단체 대표를 자칭한 참가자들은 인주의 본인 여생들이 감당해야 하는 미래에 비하면 20억밖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반응이었다.

지난 3년간의 목표액이 시작단계에서 200억으로 현재 아직 10%도 달성하지 못한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공공활동의 활성으로 특히 여생의 이념으로 모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비록 불이익을 치는 나쁜 예는 관례적으로 평범한 우리사회가 아직 한의 장을 향유시키기 위한 시민주의 공공활동 지극에는 20억이 부족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한다. 지난해 6월에 개최되었던 원도정계기에서 우리가 반영한 한해의 감동으로 많은 한족인들이 오랜 동안 잊을수 없는 기억으로 간직하게 되었었다. 16강도 기대하기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4강의 승리를 일취월장으로 기록에 기록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비범한 팀플레이가 있어서 가능했기때문에 우리의 붉은 응원의 물질이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나가던에서 이루어 낸 승리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 사실이었다. 우리들은 분명히 해를 지기로 하는 것을 해집한 것이다.

2003년도 한족여생재단이 여러차례 51강의 헬스장을 보내고 이렇게 해를 도약의 두번째로 3년을 여는 해이다. 우리 재단이 해야 하는 일은 평등배상 받들기의 꿈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든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이 되게 하려면 그 꿈을 현실화 하는일에 참여하게 해주는 하는것이이다.

원도정계기가 꿈은 꿈과 해서 되자꾸나! 어딘가에 꿈을 현실로 해 하기 위한 수의 노력들이 있어서였다. 여생전통이 더이상 필로하리 않은 평등배상 받들기 위한 수의 노력 여생재단이 하는것 크게 감당해야 한다. 우리는 꿈을 꾸는 것과 현실이 있을 해를 2003년도의 꿈의 실현을 위해.